

충성대신문

제 213호 2025년 7월 7일 월요일

正論直筆로 忠誠臺의 價値創出을 先導한다.

포효하라!
능률한호랑이의
머리
이상으로



창간 1974년 5월 20일 / 발행인 박성훈 / 편집인 김창언 / 주간 최재호 / 부주간 권지민
편집담당 강수정 / 편집국장장생도 이예찬 / 충성대신문사 (054) 330-3605 www.kaaymil.kr
213호 사진제공 및 편집: 대위 정수빈, 주무관 엄재선, 이성주, 일병 이수우

“강인한 체력과
필승의 정신전 연마”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무더위속 담금질 ‘하계군사훈련’

사관생도들의 2025년 하계군사훈련이 시작됐다. 하계군사훈련은 6. 23(월)~ 8. 1(금) 시행된다. 이번 훈련은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연마하고, 군사전문지식을 갖춰 미래전장을 주도할 통섭형 리더로 성장하는 핵심 기간이 될 것이다. 3학년은 유격훈련을, 4학년은 공수훈련을 실시한다. 특히 4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도시지역작전 및 근접전투(CQB)훈련이 실시된다. 이는 변화하는 전쟁상황

에 걸맞는 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으로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하는 훈련이다. 숨이 막힐 정도의 무더위와 육체적 한계를 느낄 하계군사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관생도들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왕성한 탐구심, 포기를 모르는 열정으로 당당하게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이다.

주무관 강수정

기획 추억의 공간을 찾아서

과거의 전통을 담아, 미래의 가능성을 열다 : 충성관



충성관 건립전충성극장 사관후보생 입교선서식



1974년 11월 20일 준공 당시의충성관



충성관



現 충성관

학교를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공간 중 한 곳이 충성관일 것이다. 학교에서의 첫발을 내딛던 곳, 가입교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당당히 신고하던 곳, 고단한 사관생도·사관후보생 생활 중 힘찬 에너지를 발산하며 하나가 되었던 곳, 영화와 다양한 공연으로 여유와 위안을 얻었던 곳, 학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던 곳, 그 곳이 바로 충성관이다.

충성관은 1974년 준공했다. 충성관 준공 이전에 강당 역할을 한 장소는 충성극장이 있었다. 충성극장은 1958년 영천근무대에서 세운 것으로 노후화와 180평 정도의 협소한 공간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06명(1층 1,282석, 2층 224석)을 수용할 수 있는 326평 규모의 종합강당인 충성관 건립을 추진하여 1974년 7월 1일 착공, 같은 해 11월 30일에 준공했다. 충성

관이 준공됨으로써 학교의 위상제고는 물론 전 장병이 한 자리에 모여 각종 의식행사와 학술대회, 공연 등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었다. 특히, 故 박정희 대통령이 사관생도와 장병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영사기를 하사해 영화를 관람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의식행사와 교육, 문화의 장이었고, 추억의 장소가 된 충성관이 2024년 9월 새롭게 태어났다. 충성관은 1,300석 규모의 대강당과 최신 음향·조명 시스템, 대형 LED스크린, 멀티미디어 설비를 갖춘 복합 문화교육공간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충성관에서는 세미나, 강연, 연주회, 연극, 오리엔테이션, 충성기초훈련 입교식 등 다채로운 행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충성관은 단순한 건물을 넘어, 생도 정신과 교육철학이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주무관 강수정



3사 1기 문예제



학부장교 입교식(1983년)



충성에술제(1997년)



3사 1기 문예제



現 충성관 내부전경

생도 학술활동 · 세미나



The 25th International Cadets Conference



2. 26(수)~3. 4.(화)에 열린 국제사관생도회의에 3학년(61기) 김우주 생도가 참석해 16개국 국제사관생도들과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쳤다



2. 27(목) 해운대구 백스코(BEXCO) 제1전시장에서 열린 DSK 2025 드론쇼 코리아에 국방시스템과학과 생도들이 참석했다.



3. 26(수)~3. 28(금)까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2025 한국 MEMS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한 4학년(61기) 최민영 생도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제 27회 한국 MEMS 학술대회
2025. 03.26(수) ~ 03.28(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5. 8(금) 한국공기치학회 학술대회(주한 모로코 대사관 공동 주관)에 참가한 4학년(61기) 이도연 정수현 생도가 「사관학교 교육과정 비교가 모로코에 주는 함의」라는 발표를 통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6. 17(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최된 육군 정신전력 아이디어톤 경연대회에서 4학년(61기) 안태현, 강정훈, 이현재 생도가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했다.



4학년(61기) 한유진 생도는 2025년 1학기에 학점교류 제도를 이용해 포스트텍(POSTECH) 화학환경과학과 수업을 이수했다.

헌신과 희생의 발자취를 따라, 선배 세대들과 함께 하는 감사와 기억의 시간

6·25전쟁 참전용사 및 역대 원로교수 초청행사



생도들이 6·25전쟁 참전용사들께 리스안셔스를 달아드리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13일 금요일, 6·25전쟁 참전용사와 역대 원로교수를 초청해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전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천에 거주하시는 6·25전쟁 참전용사 11분과 역대 원로교수 11분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보훈 정신을 계승하고, 6·25전쟁 참전용사와 원로 교수에 대한 깊은 존경을 표함과 동시에 학교 장병 및 사관생도들의 애국심과 애교심을 고취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는 참전용사와 역대 원로 교수에게 사관생도와 참전용사 후손 장병, 제자 등이 직접 감사를 상징하는 카네이션과 송고함을 의미하는 리스안셔스를 달아드리

는 순서로 문을 열었다. 이어 생도들의 충성과 멋, 각오를 다지는 '충성의식'을 통해 선배전우와 원로교수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현했다. 순서 중간에는 학교에서 제작한 감사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세대를 초월한 존경과 감동을 나누기도 했다. 또한 열병과 사관생도 분열을 통해 단결력과 군기를 바탕으로 선배 세대에 대한 경의와 전통 계승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다. 이후 학교시설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사관생도들에게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 되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하고 호국훈을 이어받는 의미 깊은 시간이 되었다.

또한, 역대 원로 교수들에게는 발전한 학교와 반듯한 생도들의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3사 근무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후배 교수 및 생도들과 정서적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4학년 강승원 사관생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께서 지켜내신 조국 신하의 풀 한포기, 흙 한줌까지도 소중히 여기며 숭고한 희생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라며 "또한, 원로 교수님들의 애교심을 본받아 학교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학교는 앞으로도 호국보훈정신을 계승하고, 학교에서 근무한 장병 및 군무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 윤현수



앞으로 변화하는 전쟁환경! 생도 군사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



강연 중인 김강원 소령(국방시스템과학 교수)

지난 6월 17일, 학교는 하계군사훈련을 앞두고 생도들의 전략적 사고력과 상황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생도 군사리더십 역량강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진화하는 전장의 양상과 기술발전, 법·윤리적 대응방안 등 미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교 교수들이 강연을 맡아 생도들에게 통합적 사고와 실질적 통찰을 제공하고 소통의 장이 되었다.

특히 TED 스타일의 짧고 강렬한 강연 형식을 채택해, 각 세션마다 시각적 자료와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생도들의 직관적 이해를 높이고 몰입도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세미나는 인문·사회·공학·이학의 융합적 관점에서 미래전 양상에 대한 복합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미래 인지전에 대비한 뇌과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김대은 소령(심리학 교수)이 강연을



김대영 중령(공학처장, 전자공학 교수)이 생도와 드론을 시연하고 있다.

말아, 전략적 리더십의 의사결정과 뇌신경학의 관계를 설명하며, 전투 생존력 향상을 위한 인지전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김강원 소령(국방시스템과학 교수)은 「AI 발전과 변화하는 전쟁 수행방식」을 주제로 AI 기술의 진화와 AI가 현대전 수행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무인화·지능화된 전투 양상의 흐름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생도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세 번째 강연에서는 김대영 중령(공학처장, 전자공학 교수)이 「전자기파로 연결된 드론과 미래 전장」이라는 주제를 통해, 공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드론 작전 개념을 설명하고, 강연장에서 생도가 실제 드론을 운용하는 입체적인 강연을 제공했다.

마지막 세션은 강민식 소령(법정학 교수)이 「미래 전장 변화와 법의 역할」을 주제로 첨단기술이 접목된 현대전

에서 법의 적용과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생도들에게 법과 규정의 힘이아말로 군사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임을 강조했다. 학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창의적 사고와 실천적 지휘능력을 갖춘 장교 양성을 위한 융합형 세미나와 전문적 담론의 장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무관 강수정



강연 중인 김대은 소령(심리학 교수)



강연 중인 강민식 소령(법정학 교수)



강연을 들으며 열띤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생도들

생도생활, 직접 보고 느끼다 포스트 비전설명회 개최



학교는 5월 16일, ‘포스트 비전설명회’를 개최하며, 전국 각지에서 성황리에 진행된 총 4차례의 비전설명회를 뜻깊게 마무리 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 설명회를 통해 학교에 관심을 보인 참가자들을 실제 학교로 초청해, 생도와의 매칭 및 현장 체험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총 42명(학생 28명, 교수 1명, 학부모 13명)이 참석한 이번 프로그램은 생도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생도들과 1:1로 매칭되어 학교 곳곳을 함께 둘러보며 생도 생활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행사는 국가와 학교에 대한 충성심과 명예심을 고양하는 충성의식 관람으로 시작했다. 이어 역사관 견학을 통해 학교의 설립 취지와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학무관 내 3D프린터 실습실과 사이버 교전

실습실 등 첨단 교육 시설을 둘러보며 교육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제3충용관(생활관 및 공용시설), 정무관(체력단련장 및 체육시설) 견학을 통해 생도들의 일과와 생활 여건을 직접 확인했으며, 차성도실에서는 교수 및 훈육관, 교관들과의 토크콘서트 형식의 Q&A가 이어져 생생한 궁금증 해소의 장이 되었다.

마지막 순서로는 매칭 생도들과 함께 생도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보다 현실감 있게 생도 생활을 체험하고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학교는 앞으로도 미래 장교에 관심 있는 우수 인재들에게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인재를 발굴하여 정예장교 양성의 요람으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 대령(진) 최재호



생도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역사관에서 관람을 하고 있다



3충용관에서 생도 생활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창의융합공학실에서 전자공학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3충용관 휴게실에서 매칭 생도와 생도 생활의 궁금증을 나누고 있다



사이버 교전 실습실에서 컴퓨터과학교수의 설명을 듣고 있다

군(軍) 태권도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충성대



태권도 사범연수 참가자들이 기본동작을 숙달하고 있다

태권도 사범 자격연수 시행

5월16일(금)부터 5월19일(월)까지 4일간 정무관 태권도장에서 태권도 사범 자격연수를 시행했다. 국기원 세계태권도 연수원이 주최하고 학교가 주관한 이번 연수는 태권도 4단을 보유한 생도 27명과 특전사 간부 18명, 국군간호사관학교 간부 1명 등 총 46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지도할 수 있는 태권도 사범육성에 중점을 두

고 국기원 전문강사에 의한 ‘태권도 정신’과 ‘지도자의 길’ 등 이론교육과 품새, 겨루기, 격파 지도법 등 실기교육으로 진행됐다.

자격연수 1일 차에는 오리엔테이션과 연수프로그램 안내, 태권도 지도자의 자세 등에 대한 이론교육과 함께 기본동작 및 품새 지도법 등으로 진행됐다.

2일 차에는 이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교



태권도 사범연수 참가자들이 호신술지도법(위쪽사진)과 격파 지도법(아래쪽사진)을 배우고 있다

육과 겨루기 및 격파지도법, 응급처치 등이 진행됐으며, 3일 차에는 도장 경영론, 시범 및 호신술 지도법 등이 시행됐다. 연

수 마지막 날에는 구술면접 시험을 통해 연수 기간 동안 배운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진행됐다.

학교는 국기원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협업 관계를 구축하면서 군 내 태권도 보급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기원 강사를 초빙하여 실전 태권도세미나를 진행했고, 태권도 사범 자격연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태권도 호신술 지도자 연수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체육학처장 안경일 중령은 “이번 자격연수를 통해 사관생도가 임관 후 소대 지휘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었고, 태권도 사범으로서 전문적 지식습득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라며, “이번 자격연수에 특전사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참여한 것처럼, 앞

으로 군 내 태권도 활성화를 위한 메카로서 학교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주무관 윤현수

국궁, 한 발에 담긴 수련의 무게

“

활을 쏘는 순간에 단순히 근력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흔들림 없는 자세, 안정된 활시위, 그리고 집중력. 전통 무예 국궁은 기술과 함께 정신적 평온함을 요구하는 수련이다. 학교의 문화체육활동을 조명하는 두 번째 취재, 이번에는 사관생도들의 숨은 내공이 깃든 국궁부를 찾았다. 앞서 소개한 승마부에 이어, 조용한 사대 위에서 한 발한 발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정신력과 기술의 조화, 국궁부를 가까이서 들여다본다.

”



부서장(61기 홍승민) 생도가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전통의 숨결을 잇는 사관생도들의 집중력 수련

국궁부는 2006년 창립된 이래 현재 13명의 생도가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부서장 생도(61기 홍승민)와 국궁부 사범 주도 하에 학교 내 ‘충성정’과 영천 시립체육관 ‘영무정’에서 정기적인 습사가 진행된다. “우리는 단순히 화살을 쏘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집중력, 자세, 호흡이 조화를 이뤄야 비로소

전통 무예의 정신을 계승할 수 있죠”. 국궁부 부서장 홍승민 생도는 국궁부가 사관생도의 심신을 함께 단련하는 의미 있는 수련 활동임을 강조했다.

조용한 바람과 사대의 긴장감, 국궁의 매력

국궁은 단지 활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쏘는 동작에만 그 매력이 머무르지 않는다. 화살을 들고 사대에 선 순간, 생도들은 고요함에 잠긴다. 바람 소리, 멀리서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 자신의 숨소리조차 또렷하게 느껴지는 공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레 차분해진다. “국궁장에서는 길게 뻗어 있는 사대에서 바라본 과녁, 고요한 공기와 자연의 소리까지 쉽게 느낄 수 없는 평온함을 국궁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부서장 생도는 그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각이 본인을 국궁부로 이끌었다고 말했다. 무언가를 정조준하기 위해 멈춰 서는 그 자체가 국궁의 매력이다. 활시위에 힘을 실는 순간보다 그 앞의 정적이야말로 이 무예가 가진 고유한 정신성과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한 발에 깃든 수련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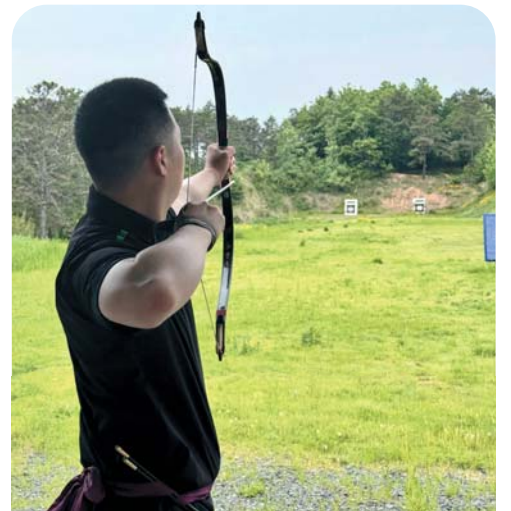
국궁이 단순한 ‘활쏘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기자가 직접 활시위를 당겨본 결과 생각 이상으로 많은 힘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과녁을 맞추기 어렵다. 오히려 활시위를 안정적으로 당기기 위해선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고요한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부서장 생도는 “지속적인 연습과, 알맞은 호흡, 자세가 맞아야 정확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가입 후 한두달간 과녁을 맞추지 못했다가 처음 과녁에 적중했을 때 울리는 알림음을 듣고 해냈다는 기쁨으로 가득찼습니다”라고 말했다. 국궁은 단지 활을 당기는 근력만으로는 이뤄낼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흔들림 없는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운동’에 가깝다.

고진감래(苦盡甘來)

육군3사관학교 국궁부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고진감래’라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고되고 힘든 연습의 연속이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그간 흘린 땀이 값진 결실로 돌아온다. 부서장 생도는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과녁을 맞추는 순간 온전히 느낄 수 있다”며, “그 순간의 행복함이 국궁부 수련의 진정한 의미이다”라고 강조했다. 힘든 과정을 견디고 나서 얻는 성취감과 기쁨이 바로 국궁부가 추구하는 바다.



국궁 연습을 하고 있는 국궁부 생도들



62기 손민 생도가 표적을 겨누고 있다.

국궁부는 2025년 후반기에 대학국궁연맹이 주관하는 전국대학생 궁도대회에 출전해 육군3사관학교의 이름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궁도 자격 1단 취득을 목표로 꾸준한 수련도 이뤄지고 있다.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과 단을 취득하기 위한 연습도 모두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국궁은 취미이자 수련이고, 또 하나의 삶의 자세이기도 하죠”. 부서장 생도는 “국궁이라는 전통 무예가 단순한 동아리 활동을 넘어 생도들에게 의미 있는 여정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62기 강태 형 김 지 유 기자생도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전하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생도들은 평소 존경하고 감사했던 교수님들께 제자의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전달했다.

준비한 꽃과 함께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며, 교수님들과 따뜻한 추억을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금 되새기며, 짧지만 깊이 있는 감사의 순간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비록 짧은 시간, 작디작은 카네이션 한 송이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

는 스승님들에 대한 생도들의 깊은 존경과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늘 한결같은 열정과 애정으로 생도들을 이끌어 주시는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의 생도 생활은 물론 임관 이후에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 었다.

“언제나 생도를 위해 애써주시고 열정을 다해주시는 스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1기 이재은 기자생도

신설학과를 소개합니다!

61기이재은,이예 찬기자생도

국제지역학과

Q 국제지역학과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제지역학과장 문은석 교수

A 국제지역학과는 국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지역학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능력을 배우는 전공 학과입니다. 정치외교학이나 제2외국어학과와의 유사성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국제지역학은 고유한 대상, 방법, 전통을 가진 하나의 정형화된 학문이라기보다는, 언어와 문화의 복합성을 바탕으로

국제관계와 지역연구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는 학문간의 경계를 아우르는 ‘학제적’ 학문입니다. 우리 학과는 어학이나 국제관계학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보다는, 특정 지역의 언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국제관계 현상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한민국 안보 및 군사외교에 중심적 영향을 미치는 일본과 중국부터 시작해 점차 동아시아, 중동, 유럽 등의 지역으로 학습 및 연구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 학과가 추구하는 핵심 비전이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A 국제지역학과의 가장 큰 목표는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생도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공 학습 초기부터 중·고급 수준의 어학 능력을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에는 해당 언어를 바탕으로 그 지역의 정치, 군사, 외교 등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생도는 임관 후 해외 군사교육과정이나 전문학위 위탁교육 장교로 선발되어, 현지에서 보다 심도 깊은 교육과 연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차 우리 육군의 글로벌 군사협력 중심에 서는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 교수진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Q 학과 진학을 준비하는 생도들이 미리 학습해오면 좋은 내용이 있을까요?



A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학 능력의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학과 개설 과목의 중고급 강독 수업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또한 이미 고급 수준의 어학 능력을 갖춘 생도들을 위해 별도의

수월성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 고급 콘텐츠를 통해 더욱 심화된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국제적 감각을 기르기 위해 국제관계 및 국제정치 관련 개론서들을 미리 읽어두는 것도 좋은 준비 방법입니다.

Q 학과 커리큘럼의 주요 특징이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어학 능력을 중·고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문법, 회화, 강독 중심 과목이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의 군사 문제나 외교 현안을 해당 언어로 분석·토의하는 심화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도들의 학습 성과와 국제정세, 안보 상황에 따라 커리큘럼은 유연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Q 졸업 후 생도들이 어떤 역량을 갖추었으면 하시나요?

A 해당 지역의 언어를 원활히 구사하고, 그 지역의 정치, 외교, 군사 문제를 현지 전문가 못지않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육군의 대외 군사협력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라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국방체육학과

Q 국방체육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국방체육학과장 박상호 교수

A 국방체육학과는 사관생도들이 체육 전공을 통해 초임 장교 시절부터 체육활동과 체력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군단급 이상 제대에서 체육 전문 담당자와 국군체육부대 등에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Q 학과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장병들이 신체 건강과 체력 향상을 이루도록 효과적인 트레이닝 기법을 배우고, 지도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야전에서 활용 가능한 체육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평가하는 역량을 함양하며, 종목별 심판 및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Q 학과가 추구하는 핵심 비전은 무엇인가요?

A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야전 부대나 부임지에서 체육 전문 담당자 또는 인사 실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비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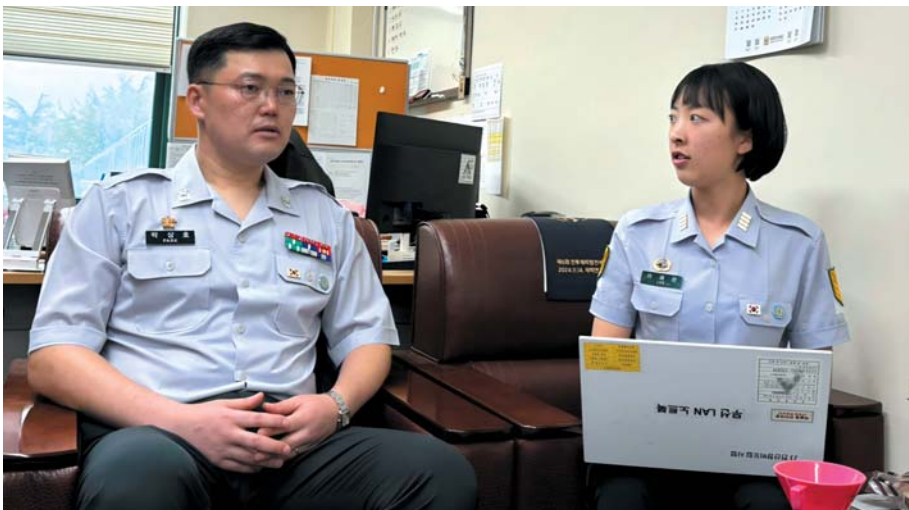
Q 생도들이 학과진학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오면 좋을까요?

A 군대 체육의 기초 이론과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관련 내용을 미리 학습해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신체적 능력과 체력을

갖추는 것이 기본입니다.

Q 학과 커리큘럼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A 3학년 2학기부터 전공 과정이 시작되며, 현대 스포츠 교양, 체육학 개론, 스포츠 지도론 등 기초 과정을 이수한 뒤, 4학년부서는 운동생리학, 체육 사회학 등 전문 과목을 학습하게 됩니다. 실무에 직접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졸업 후 야전에서 즉각 적용 가능한 실전적 교육도 큰 강점입니다.



Q 졸업한 생도들은 어떤 역량을 갖추게 되나요?

A 전문성을 갖춘 체육인으로서 스포츠맨십, 리더십, 인성 등 군 장교로서 필요한 핵심 자질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결국, 야전에서 부대를 이끄는 유능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Q 마지막으로 생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A 생도 생활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함께 성장해나가길 바랍니다.

두 학과의 전문 교육을 통해 생도들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문화의 벽을 넘은 하나의 꿈”

3학년(62기) 안 승 민 생도 인터뷰



3학년(62기) 안승민 생도

Q 입학 전 르완다에서 생활했다고 들었습니다. 르완다는 어떤 나라인가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해 주세요.

A 안녕하세요. 62기 1중대 안승민 사관생도입니다. 르완다는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작고 조용한 나라로, 평화롭고 차분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치안이 잘 유지되어 있어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며, 1년 내내 선선하고 쾌적한 기후 덕분에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입니다. 도시는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자연 풍경도 아름다워 여유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나라입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르완다에서의 특별한 경험과 그 경험이 어떻게 군인의 삶으로 이어졌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서로 다른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시간입니다. 르완다는 여러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이기에,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열린 마음과 협동하는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 속에서 적응하며 지냈던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지는 힘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공동체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군인의 삶에 대한 꿈이 생겼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온 제 삶의 방향과 군인의 역할이 맞닿아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Q 생도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A 생도의 길을 걷기로 한 결정은 어릴 적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얻은 삶의 가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르완다에서 자라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 경험은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삶’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군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했고, 제가 가진 협력과 포용, 끈기의 자세와도 잘 맞다고 느껴 생도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Q 르완다에서의 경험이 생도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A 가장 큰 도움이 된 점은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입니다. 르완다에서 여러 민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는 생도 생활에서도 동기들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낯선 환경에 대한 적응력도 르완다에서 키운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생도 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도전을 이겨내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Q 졸업 후 군에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군을 넘어 삶에서 추구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A 졸업 후에는 항공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전에 항공디자인학과에서 학위를 취득했기에, 그동안 배운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육군의 항공기 운용, 유지보수, 그리고 항공 전술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특히 육군의 항공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술 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군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항공 분야의 리더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군의 전략적 목표를 지원함과 동시에, 나아가 민간 항공 산업과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나는 것이 제 인생 목표입니다. 항공 기술을 통한 혁신과 발전, 그리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62기 전 예찬 신윤주 기자생도



르완다의 키갈리 학교시절 친구들과 함께한 안승민 생도(왼쪽)

“그날의 태극마크, 오늘의 충성대”

3학년(62기) 김 보 민 생도 인터뷰

학교에서 모두가 비슷한 활동복을 입고 같은 코스를 달릴 때, 유독 눈에 띄는 생도가 있었다. 김보민 생도는 유연했고, 강인했으며, 무엇보다 그 모든 동작이 어딘가 익숙했다. 알고 보니, 그는 유도 국가대표 출신이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관생도’라는 단어 너머에 또 다른 삶의 궤적이 선명히 드러난다.



3학년(62기) 김보민 생도

Q 유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부터 유도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유도부 감독이자 체육 선생님이 권유해 주셔서, 비교적 늦은 나이에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유도 국가대표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A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국제대회에 출전했을 때입니다. 태극마크를 달고 세계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고, 그 순간이 너무 가슴 벅찼습니다. 긴장도 많이 했지만, 그 무대에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고, 더 성장하고 싶다는 동기도 강하게 생겼습니다.

Q 유도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A 유도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저를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준 인생의 스승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도를 통해 인내심과 끈기를 배웠고, 승패를 겪으며 겸손함도 함께 익혔습니다.

Q 국가대표 선수에서 군인의 길로 들어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운동을 하며 잠시 잊고 지냈던 장교의 꿈이 육군3사관학교 플래카드를 본 순간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도전을 결심했고, 그 선택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Q 유도에서의 경험이 생도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A 유도를 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견디며 체력과 정신력이 자연스럽게 단련되었습니다. 유도

에서 배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보자’라는 마음가짐이 지금 생도 생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Q 특별한 이력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A 유도를 하면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 경험 덕분에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생도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와 자세입니다.

Q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선수에서, 이제 국방을 책임질 생도로서의 각오는?

A 운동선수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체력과 정신력을 단단히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사관생도로서 끊임없이 정진하여, 조국을 수호하는 육군의 정예 장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도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은 잠시 내려놓았지만, 그는 여전히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선수’였다. 유도장에서, 그리고 이제는 충성대에서 그의 땀방울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 김보민 생도의 새로운 무대를 응원한다.

62기 김건우, 김동희 기자생도



2023 추계 전국 남·여대학 유도연맹전에서 경기중인 김보민 생도(오른쪽, 흰색 도복)

61·62기 생도들이 나눈 하계군사훈련 이야기

영원할 것만 같던 낯선 새로움이 끝나고, ‘1차 일반학’이라는 여정의 마침표 아래 생도들의 진짜 여름이 시작됐다. 하계군사훈련을 앞둔 62기 생도들의 고민을 엿보며, 그에 응답하는 61기 선배들의 따뜻한 조언 속에서 우리만의 특별한 여름이 피어났다.

1중대 : “직접 부딪혀야, 체력이 생깁니다”



1 중대 생도들

62기 김준수 생도 : 하계군사훈련을 앞두고 체력에 자신이 없는 생도들은, 어떤 방식으로 체력을 향상시키는게 좋겠습니까?

61기 안진철 생도(1중대장) : 주변에서 ‘힘들 거야’라는 말만 듣고선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훈련을 직접 겪고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겨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게 진짜 체력 향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62기 김준수 생도 : 하계군사훈련 시간표가 빡빡한데, 효율적인 휴식 방법이 있겠습니까?

61기 안진철 생도 : 집중해야 할 순간에 몰입하고, 쉬 수 있는 주말에는 정말 푹 쉬는게 중요해요.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부상 없이, 62기 모두가 성장하는 여름이 되길 바랍니다.

2중대 :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도전을 준비하라”



2 중대 생도들

62기 구본수 생도 : 지휘군무생도에 지원했다가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로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십니까?

61기 정다빈 생도(2중대장) : 나도 인사보좌생도를 두 번이나 지원했지만 두 번 다 떨어졌습니다. 만약 거기서 포기했다면 지금의 값진 경험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비선’은 단지 하나의 결과일 뿐 한계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다음 기회를 항상 준비하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62기 구본수 생도 : 곧 공수훈련도 예정되어 있는데, 훈련에 대한 두려움이 들 때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61기 정다빈 생도 : ‘해야 하나까 태연하게 해보자’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사실 모두가 무섭고 힘들지만 ‘나 혼자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단순한 심리 하나가 훈련을 이

겨내는 큰힘이 될 것입니다.

62기 구본수 생도 : 선배님 말씀처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어진 위치에서 더욱 집중해보겠습니다. 다. 비록 지휘의 위치는 아니지만, 스스로를 단련해 진정한 군인의 기본기를 다져나갔습니다!

3중대 : “한계를 넘을 용기, 그리고 전우애”



3 중대 생도들

62기 송진용 생도 : 하계훈련 중 가장 힘들었던 훈련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61기 신윤호 생도(3중대장) : 나는 유격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한계에 도달하는 훈련이기 때문인데 그럴 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평소 기초체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2기 송진용 생도 : 동기들과 다투지 않고 훈련을 완수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하니까?

61기 신윤호 생도 : 육군 복무신조에 ‘우리는 명예와 신의를 지키며 전우애로 굳게 단결한다’는 말이 있어요. 결국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데 이번 훈련에서 진짜 ‘전우애’를 느껴보면 좋겠습니다.

4중대 : “힘든 순간, 함께 간다는 마음이 힘이 된다”



4 중대 생도들

62기 김동혁 생도 : 유격훈련 중 특히 행군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61기 김진성 생도(4중대장) : 물론 힘든 순간마다 나 자신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함께 가는 동기들이 있기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군의 핵심 간부가 될 생도들이기 때문에, ‘화합, 단결, 상호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연대감이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치지 않는 것! 부상은 남들보다 배로 힘들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62기 김동혁 생도 : 감사합니다! 선배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하계군사훈련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하겠습니다. 선배님도 공수훈련 잘 마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선배가 함께 나누는 이 여름의 경험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생도들의 성장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아가고 있다.
61기 정다빈 기자생도

임고서원을 찾아서 ...



영천의 대표명소, 임고서원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임고서원은 고려 말 충신 정몽주 선생을 기리기 위해 1554년 건립된 사액서원이다. ‘사액서원’이란 국가로부터 현판(額)을 하사받아 공인된 서원을 의미하며, 조선 시대 학문과 유학이념을 보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선 명종은 이 서원에 사서오경을 비롯한 여러 유교 경전을 하사하며 그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오늘날 임고서원은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문을 기리는 유서 깊은 역사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문사생도들, 정몽주 생가와 임고서원 찾아 충절의 정신 되새겨

충성대 신문사기자생도들은 정몽주 선생의 생가와 임고서원을 찾아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는 신문사 주간인 최재호 교수의 해설이 함께 했으며, 생도들은 해설을 통해 정몽주 선생의 생



애와 역사적 의미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최 교수는 정몽주 선생이 고려 말의 혼란기 속에서도 절개를 지킨 충신이자, 학문과 도덕을 중시한 인물임을 강조하며, 정몽주 선생의 삶과 철학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충절’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정몽주 선생의 일관된 삶의 자세와 원칙은 후세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된다고 덧붙였다.



사의식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61기나은비, 62기 김두나, 이가영 김동희 기자생도

생도들은 생가와 서원을 둘러보며 당시의 분위기를 체감하고, 해설을 통해 정몽주 선생의 충절과 학문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직접 체험했다. 역사 현장 속에서 생도들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사색하는 모습은 사진으로도 고스란히 담겨, 이번 현장 학습이 단순한 방문을 넘어 역

칼럼 I



중령 강용관
(인문학처인문학처장)

‘열정’이라는 단어는 참 멋있다. 무엇이든 열심히 하는 사람, 땀 흘리는 사람,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자극을 받곤 한다. 열정 중에서도 진정 매력적인 열정은 단발성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열정인 것 같다. 끈기 있게 이어지는 열정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열정은 스스로 선택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특히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사람은 ‘생존을 위한 열정’을 발휘하게 된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발휘했던 그 열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사람의 삶과 가치관으로 깊숙이 자리 잡는 모습을 보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열정의 대표적인 예로 지금 80세 이상의 인생 선배님들을 떠올린다. 6·25전쟁, 월남전, 파독 광부와 간호사 시절 등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고난의 세월을 이겨내 온 분들, 그분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견뎌 내셨는지를 생각하면, 척박한 환경이

족의 생계를 위해 무슨 일든 가리지 않고 해내야만 했던 분들.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우리네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걸어온 길이다.

그분들이 흘린 땀과 피 위에 우리가 지금 이처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다.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 때로는 그분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풍요를 누리면서도, 이런 저런 불평을 하는 모습에 스스로 반성하기도 한다.

지금에서야 어머니의 고된 노동을 생각해 보면, 그 빵은 결코 평범한 빵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둥근 빵 한 조각 안에는 어머니의 수고와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하기에 그 보름달 빵은 지금도 소중하고 감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풍요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돌아보는 일은, 우리의 삶에 더욱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준다. 이 모든 것들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의 결과임을 인지할 때, 쉽게 인생을 낭비하거나 불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속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노력한다. 그러면서 내 마음도 엇나가지 않게 보호하곤 한다. 그 이야기들이 주는 교훈이 장차 정예장교가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사관생도들의 마음에도 뿌리 내리길 기도해 본다. 우리 모두 귀하게 만들어진 오늘이라는 선물을 최선을 다해 살아 가자.

그들이 흘린 땀, 우리가 사는 오늘

야말로 가장 강인한 열정을 길러준 학교와 같은 존재 같다는 목상이 되고, 그 가혹한 시간을 극복한 분들께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분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지금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 굶주림과 싸워야 했던 분들,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경험했던 분들, 낯선 외국 땅에서 목숨을 담보로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던 분들, 가

이와 관련하여 어릴 적 추억, 한 장면이 떠오른다. 시골에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우리 집. 어머니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면 동네 아주머니들과 함께 양파 작업을 하러 다니셨다. 종일 땀별 아래에서 일하고 돌아오시면, 손에는 하루 품삤과 함께 보름달 빵 하나를 들고 계셨다. 그 빵은 어머니께 주어진 간식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드시지 않고 늘 자식들에게 주셨다. 그때는 철없이 달려들어 그것을 받아 먹었지만,

칼럼 II



중령 김동환
(공학처 건설공학교수)

요즘 SNS에는 멋진 사진과 쇼츠(shorts), 릴스(reds)가 우리의 시선을 유혹하고 있다. 이제 모든 경험을 짧은 동영상인 편집된 삶으로 만들어 장식하기에 이르렀다. 읽고 싶은 책, 알고 싶은 여행지, 먹고 싶은 음식도 이제 짧은 시각적 유희, 뇌를 자극하는 적은 양의, 아니 무한의 도파민(dopamine)으로 해결할 수 있다.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Pascal)은 그의 저서 《광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림이란 얼마나 허망한가, 원래의 풍경에는 감탄하지 않으면서 겉모습을 유사하게 그린 그림에는 감탄하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자연의 광경이나 경험에는 무심하게 지나치나, 그것을 비슷하게 묘사한 그림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노을이 지는 석양이나, 고층빌딩에서 바라보는 야경 등에 놀라워하지만, 그것을 찍은 사진들을 점점 더 자주 클릭하고 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분명, 우리가 직접적으로 풍경, 즉 피사체를 바라볼 때, 시야가 넓은 곳을 바라보지만, 우리의 눈은 물리적으로 한 곳에 초점을 집중한다. 예를 들어, 노을을 바라보면,

서, 미술관에서 그림을 볼 때,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보면 전체적인 구도를 잘 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쇼츠나, 릴스를 계속 클릭하는 이유는 그것과는 다른 이유로 보인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것들을 클릭한다. 이것은 마치 술이나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의식화되고 행동화되어 있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가 1932년에 쓴 소설, 《멋진 신세계

급의 사람들은 촉감영화를 보고, 소마를 먹으며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이내 지배 계층들은 아래 계층의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은 소름 끼치도록 현재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 사람이 사람의 뱃속이 아니라 유리병 속에서 태어나는 것부터, 힘들 때 소마를 먹는 것처럼, 힘이 들고 지칠 때, 그리고 출퇴근 시간과 이동하는 시간에는 휴대폰의 짧은 영상들에 빠져든다. 그런 것에 빠져드는 데에는 특정한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얼마 전 서울 출장길에서도, 지하철 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휴대폰 영상과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러한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무섭도록 동일한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SNS의 쇼츠와 릴스, 휴대폰의 세계에 과의존하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다양성은 살균되고, 머지않은 미래에는 ‘멋진 신세계’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생각과 명상을 해야 할 때가 아닐까.

멋진 신세계 Brave New World

우리의 시선은 사진에 나온 풍경처럼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닌, 그 풍경의 구성들인 초록의 나무, 날아가는 새, 노을의 붉은 먼지들을 보며 감탄할 것이다.

그러나 사진을 보면, 그러한 모든 것이 압축되어 풍경을 담은 한 장의 사진에 우리 눈의 초점을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가 그림이나 사진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이유는 사진이나 그림의 물리적인 시야각 때문일 것이라고. 따라

Brave New World》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600년 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디스토피아(dystopia)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멋진 신세계”는 ‘공유, 균등, 안정’이 실현된 세계로 모든 이들은 행복하고, 태어날 때부터 ‘인공 부화 조건반사 양육소’에서 계급이 정해진 채로 태어난다.

사람들은 힘들고 지칠 때 ‘촉감영화(fælies)’를 보거나, ‘소마(soma)’라는 약물을 먹음으로써 안정을 찾게 된다. 삶이 무료해지거나 힘들 때, 모든 계

학교발전자문위원 킬럼



박용후 관점디자이너
(피와이에이치 대표)

나는 늘 스스로를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주어진 사실을 분석하고, 근거를 모으고,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을 좋아했다. 누군가와 의견이 충돌할 때에도 증거, 근거, 논거를 기반으로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 마디로 “맞는 말이 이긴다”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전개될 반론을 미리 그려보고, 빈틈없이 반박할 수 있도록 논리를 쌓았다. 나의 말이 설득력 있으면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일관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다. 아무리 정교하게 논리를 짜도, 정작 사람들은 논리만으로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다. 도

리어 강한 어조에 불편한 표정으로 반응하거나, 대화를 피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다. 심지어 내 말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부터 의문이 생겼다. “왜 맞는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생각에 동참하지 않을까?”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논리보다 사람 자체에 ‘호감’을 느끼는지가 중요하다.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논리는 사람의 머리를 설득

런도 강도 높게 받는다. 자연히 실수나 약점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논리와 결과 중심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생긴다. 하지만 리더십은 단순한 합리성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함께 움직여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하고, 그들이 진심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호감’이다.

호감이란 단순히 친절하거나 착해 보인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가 나를

이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을 기반으로 한 언어를 쓰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감정을 배제하지 않고, 때로는 유머를 섞고, 실수도 담담하게 인정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시했다. 이런 리더 결에서는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된다.

나는 여전히 논리를 중시한다. 군 조직처럼 명확한 판단과 빠른 결단이 필요한 곳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논리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말하는 사람이 ‘신뢰할 만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어야 한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의 말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할 것이고, 더 큰 책임을 짊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논리’는 당신의 무기다. 하지만 ‘호감’은 그 무기에 힘을 실어주는 동력이다.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그 어떤 전략도 작동하지 않는다. 논리와 호감, 둘 다 갖춘 리더가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설득이고, 진짜 리더십이다. 충성대의 생도들이 논리와 호감을 모두 갖춘 리더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논리보다 강한 힘, 호감

한다. 하지만 사람은 머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정확한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설득의 시작은 말이 아니라 사람이고 ‘호감’이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 주고, 최소한 믿고 싶어야 내 말에도 귀를 기울인다. 내가 신뢰받는 사람일수록, 말의 무게는 훨씬 더 크게 다가간다. 결국 강한 자는 나를 좋아해 주고 나의 말을 믿어 주는 사람이 많은 호감형 인물이다. 우리 충성대 생도들은 경쟁도 치열하고, 훈

대할 때 느끼는 편안함, 존중받는 느낌, 인간적인 공감 같은 감정의 총합이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 듣는 태도 하나에서 드러나는 것이며, 진심은 아무리 감춰도 결국 드러난다. 내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상대도 나를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런 호감은 결국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협력과 응집력을 이끌어낸다. 실제로 탁월한 리더들을 보면 논리만 앞세우는

명예 킬럼리스트 킬럼



문성묵 센터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사람들은 각자 이루고 싶은 꿈을 갖고 산다. 물론 그 꿈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자신에게 더 나은 미래가 오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사관생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필자는 여러분의 선행로서 ‘자유통일의 꿈’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자유통일이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평화통일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사관생도로서 반드시 자유통일의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헌법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북한 땅도 우리 영토에 해당하며, 북한 정권은 우리 영토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장교는 헌법을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자유통일은 그 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

둘째, 국방목표이기 때문이다. 「2022 국방백서」 39쪽에는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즉, 국방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임관한 대한민국 장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어진 것처럼 자유통일도 우리 힘만으로는 이뤄내기 어렵다.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대한민국 국민들이 통일에 관심조차 없다면, 어떤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겠는가?

셋째, 강력한 힘을 구비해야 한다.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자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굳건한 안보대세를 유지해야 한다. 북한정권은 여전히 대남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유 통일의 꿈을 갖자!!

‘국가 보위와 평화통일’이며, 여기서의 통일은 바로 자유통일을 뜻한다.

셋째, 자유통일은 최고의 안보이기 때문이다. 안보란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집단은 다른 아닌 북한정권과 북한군이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은 이러한 위협의 실체를 제거하는 것이며, 자유통일은 곧 최고의 안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우리 사관생도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이 통일에 대한 꿈과 소원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분단이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

김정은은 2023년 말, 남북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초토화, 영토 평정’ 등을 언급하면서 핵미사일 역량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김씨 3대 세습 정권 아래에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자유통일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1990년 통일을 이룬 서독은 동독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 결과, 꿈에도 그리던 자유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자유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무엇보다 위협이 제거되어 국가안보가 더욱 공고해질 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인구는 약 8천만 명, 국토는 지금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통일 대한민국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인력과 자원이 결합된다면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지금 여러모로 어려운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해, 한강의 기적이 대동강의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중심국가로 힘차게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금은 분단으로 인해 육로로는 유럽으로 갈 수 없지만, 통일 이후에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기차나 차량으로 유럽 대륙을 횡단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이다. 광복이란 진정한 자유의 빛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반쪽의 광복만을 이룬 상태이다. 군사분계선 이북은 아직까지 진정한 광복을 맞보지 못한 채 암흑 속에 놓여 있다. 자유통일을 성취함으로써 비로소 광복은 완성될 수 있다.

후배들이여, 광복 100주년에는 반드시 통일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자유통일의 꿈을 가슴 깊이 간직하자.

충성대신문 명예칼럼리스트 인터뷰

AI시대에 더욱 빛날 ‘따뜻한 인품’



김 병 일 이사장
도산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이사장

리더십과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충성대신문 명예칼럼리스트인 도산선비문화수련원 김병일 이사장님을 만나, 퇴계 이황 선생의 선비정신과 공동체를 위한 인성교육,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인품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했다.

Q 이사장님께서서는 2023년 8월, 충성대신문 명예칼럼리스트로 위촉되신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칼럼을 기고해 주고 계십니다. 학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칼럼을 통해 사관생도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A 육군3사관학교와는 충성대신분 주간인 최재호 교수님과과의 인연으로 처음 시작됐어요. 명예칼럼리스트로 위촉되기 전에도 몇 차례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고, 위촉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있죠. 사관생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진정한 리더란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 가치를 먼저 실천하는 따뜻한 사람이 합니다.

Q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관생도들이 일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① '내가 먼저'라는 말은 단순히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사관생도는 미래의 장교이자 공동체의 중심이 될 존재입니다. 남보다 앞서 책임을 지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청소 도구를 챙기고 손에 물 묻히는 사람이 있고, 모두가 피곤한 휴련 뒤에 무거운 장비를 자진해서 정리하는 생도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고 신뢰를 얻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생도 시절부터 꾸준히 길러낸다면, 장차 어떤 조직에서도 신망받는 장교로, 전역 후에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Q 평소에도 전통 윤리와 공동체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어떤 계기로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전통 윤리에 대한 제 관심은 사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어릴 적부터 몸에 밴 생활 속 경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예절과 질서를 중시했고, 자연스럽게 '사람 사이의 도리'에 대해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후 도산서원, 월봉서원 등에서 퇴계 이황 선생과 고봉 기대승 선생의 삶과 사상을 접하면서 그분들의 철학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 움직이는 지혜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지요. 특히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은 지금의 청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화두입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기고해주신 칼럼 「갈등을 푸는 주인 공이 되자」에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문제를 짚어주시고, 그 해법으로 전통 윤리인 '오륜(五倫)'의 현대적 실천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왜 오늘날에도 오륜이 갈등 해소의 유효한 원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 요륜은 인간 관계의 기본 원칙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

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봉우유신(朋友有信)'이 다섯 가지가 바로 인간 관계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단지 유교의 교훈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마음을 담고 있는 원리이지요. 특히 요즘처럼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갈등이 빈번한 시대일 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윤리가 절실합니다. 오류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복잡한 갈등을 푸는데 있어 깊이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A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사장님께서서는 '따뜻한 인품'의 가치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기술보다 '사람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사관생도들이 그 인품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A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AI가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어 생산과 서비스 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 3차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인간끼리 경쟁했기에 지식이나 능력이 뛰어나면 인간성이 부족해도 어느 정도 용인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AI가 경쟁 상대가 되었기에 단순 지식이나 능력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AI가 따라올 수 없는 능력은 탁월한 전문 기술이나 예술적 감각 같은 부분인데, 이는 극소수 인간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따뜻한 인간성'입니다. 예를 들어, 친절한 의사나 변호사, 인자한 선생님, 신뢰받는 상사와 동료처럼 인간다운 마음가짐과 따뜻한 인품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일수록 인간다움, 즉 따뜻한 인품과 공동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사관생도들은 이를 가꾸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르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과 인품이 진정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Q 3사 생도들의 삶과 교육 과정을 간접적으로 접하시면서 인상 깊게 느끼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 3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

아가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3사를 방문할 때마다 사관생도들이 또래 청년들보다 절도를 잘 지키고 반듯한 젊은이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과 용기를 갖춘 보루가 될 사람들이 입학해서 매우 든든하게 느껴집니다. 이는 육군3사관학교에서 생도들을 잘 지도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MZ세대 초급장교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을 갖추도록 교육이 점차 그 세대에 맞게 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개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부모가 키우기보다는 서로를 존중하는 세대이기에, 이들이 전역 후에도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소위나 중위 시절뿐 아니라 50~60대까지의 삶을 생각하며 상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사관생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우선, 이렇게 학교 명예칼럼리스트로서 생도들과 꾸준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을 통해, 그리고 오늘 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어 참 뜻깊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어요. 20대 초반이라는 인생의 꽃봉우리 같은 시기에 사관학교에서 국가관과 용기, 리더십을 기를 수 있는 것은 큰 행운입니다. 지금의 노력과 수고는 반드시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이며, 이는 여러분의 일생에 걸쳐 소중한 자산이 될 거예요. 생도 시절부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듬고,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며 공동체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군에서는 상하 간 신망을 받는 장교로, 전역 이후에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퇴계 선생님께서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세’로 따뜻한 배려와 진심을 실천하는 리더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주무관 강수정

주무관 강수정

국방증명서 통합발급체계 도입



학교는 2월부터 '국방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본격 도입했다. 이는 졸업생을 비롯한 사관생도와 교직원의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증명서 발급 절차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기존에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국방부 종합민원실에 요청하고, 이를 통보받은 학교 담당자가 발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국방증명서 통합발급체계는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체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창구원활화를 통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졸업생과 사관생도들이 언제 어디서든 국문, 영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15종의 증명서를 직접 신청,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https://dcis.mnd.go.kr>)를 이용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수학습지원처 기획총괄장교 대위김범기



신임장교 지휘참모 과정을 마친 60기가 61·62기에게 보내는 메시지

보 병



60기 소위 조혜진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필수다. 교범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잘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며, 실전에 써먹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야 한다. 하계 및 동계 군사훈련 시 배우는 서식과 도식, 상황 평가 및 명령하달은 정말 소중한 경험이다. 과제 해결을 위한 나만의 방식을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보 병



60기 소위 김우진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소대 명령지 작성이다. 지도에 군대부호를 도식하는 건 학교에서 배워서 익숙했지만, 상황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게 쉽지 않았다. 또한 특전사 등 특수부대를 목표로 한다면 외줄타기, 레그턱, 순환운동, 5km 군장 뺄결음 등 기초 체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 갑



60기 소위 김요한

생도로 돌아간다면 작전명령 5개항과 명령하달, 통신장비 숙달에 더 집중하고 싶다. 신임 장교로서 체력은 기본이며, 주도적 생활 태도를 갖추고 운동습관을 들여두면 임무수행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보



60기 소위 박형규

생도생활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무와 연결된 준비 과정이다. 많은 가르침과 함께 규율속에서 생도생활을 하며 지냈던 경험들은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전술에는 정답이 없지만 교범에 근거해 과제 발표나 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정 보 통 신



60기 소위 고민규

생도 때 전술 공부와 명령하달은 꼭 열심히 해야 한다. 특히 명령하달은 단기간에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평소 남들 앞에서 말하는 연습이 중요하다. 정보통신병과의 경우 컴퓨터과학과 전공자라면 배운 전공 지식이 실무에서 활용되기 더욱 열심히 공부하길 바란다.

방 공



60기 소위 김도훈

방공 병과는 장비 중심이라 대공포·유도무기 체원을 등을 미리 알아두면 좋고 명령지 도식과 서식도 많이 연습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도 때 취미를 만들어 꾸준히 이어가는 연습을 하면 자기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자!

인 사



60기 소위 곽민경

인사병과의 경우 한글·엑셀은 필수다. 보고서 편집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신임장교 지휘참모과정은 공강 없이 수업이 이어지며 뺄결음 시간도 부족하므로 완성형 체력도 필요하다. 생도 시절 힘들어도 다양한 활동을 해보길 바란다. 그 시절만 누릴 수 있는 추억도 많다.

정 훈



60기 소위 김원겸

정훈 병과는 기본적으로 글쓰기, 말하기, 교수법, 정신전력과제와 보병대대 전술도 배운다. 평소 글쓰기와 발표능력, 교범 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사진 촬영도 많이 할 수 있다면 그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어능력시험이나 한국사능력검정 같은 자격증이 있다면 수업과 임무수행에 모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의 정



60기 소위 백승

의무학교에서 배우는 의무전술은 일주일간 수행하는 실전 같은 과목인데, 학교에서 배운 전투부상자 처치 훈련과 연관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생도 시절에는 체력을 잘 다져야 한다. 또한, 배운 내용을 곧바로 정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남지 않으니 정리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국가에 충성을! 국민에 헌신을! 가슴에 큰 꿈을!



생도 1대대

I ♥ KAAV



2025. 5. 31.(토) 환호의 날, 후배들을 찾아온 60기 신임소위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총동문회는 지난 6월 6일(금),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였다. 올해로 70회를 맞이한 현충일은 1956년, 대통령령 제1145호에 따라 제정된 이후 매년 조국을 위



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리는 날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추념식은 국가보훈부 주관으로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거행되었으며, 총동문회 또한 선후배 동기회별로 현충원에 천막을 설치하고 먼저 가신 선배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위국헌신(爲國獻身)의 길을 걸으신 선배 장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며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렸다. 한 동문은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총동문회는 앞으로도 호국보훈의 뜻을 이어받아 자랑스러운 정예장교의 전통과 정신을 후배들에게 계승·전파할 계획이다.

3사 총동문회



故 차성도 중위(1기) 55주기 추모식 거행



제1기 출신인 故 차성도 중위의 55주기 추모식이 지난 6월 23일(월),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소재 15사단역사공원에서 거행되었다. 차성도 중위는 1970년 5월 13일, 27사단 소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소대원이 수류탄을 잘못 투척하자, 소대원들을 신속히 피하게 한 뒤 자신의 몸으로 수류탄을 덮쳐 순직한 살신성인의 표상이다.

그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오늘날까지도 ‘3사인의 영웅’으로 불리며, 후배 장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추모식에는 박경종 총동문회장, 1기 동기회원 18명, 14기 1명, 25기 장광선 중장, 총동문회 사무처 및 총괄기획 분과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15사단 강현우 사단장, 참모장, 참모 등 20여 명의 부대 관계자들도 참석하였다. 추모식은 국민의례,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조종 발사, 묵념 순으로 엄숙히 진행되었으며,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차성도상’ 시상식도 함께 열렸다. 이 상은 15사단 소속 초급장교 중 5명을 선발하여 수여하는 포상으로, 고인의 뜻을 계승하고 후배 장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되었다. 총동문회에서는 이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15사단에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행사 종료 후 참석자들은 승리전망대로 이동하여 1기 남인우 선배(前 승리전망대 대대장)의 안내와 함께 부대를 둘러보며 과거의 추억을 되새겼다. 1기 동문들은 수십 년 전 군 생활의 기억을 공유하며 깊은 감회와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총동문회는 이번 행사를 위해 정성을 다해준 15사단 후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15사단의 무궁한 발전과 후배 장교들의 더욱 빛나는 미래를 기원하였다.

3사 총동문회



특전사 3사 동문, 61기 공수기본훈련 생도 대상 위문 실시



지난 6월 25일(수), 특전사 3사 동문회가 공수기본훈련 중인 61기 생도들을 위문했다.

이번 위문은 특전사에서 복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3사 동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3사 36기 출신 이규호 예비역 소령(특전사 3사 동문회 사무총장)이 훈련장을 직접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였다.

위문품으로는 생도들을 위한 공수 기수(886기) 기념 티셔츠가 제공되었으며, 생도들은 고된 훈련 속에서도 선배들의 관심과 격려를 통해 큰 힘을 얻었다.

공수기본훈련은 고도의 체력과 정신력을 요구하는 훈련으로, 생도들은 이번 위문을 통해 3사인의 끈끈한 유대감과 전우애를 다시금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3사 총동문회

학교 발전재단 소식

2025년도 학교발전기금 참여 현황

2025. 5. 1. ~ 6. 30. 까지 기부현황입니다.

※기간 외기부명단은 재단홈페이지, 충성대아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범례 : 해당기간 기부액(총 기부액), 단위 : 만원

■ 단체

49기 동기회 1,000만원, 50기 동기회 1,000만원, 33기 33인회 1,800만원

■ 학교발전 동참 특별기부자('25. 5. 1.~6. 30. 기부현황)

김호길(육사#48 2(99), 문대선(육사#52 2(4), 변용성(육사#58 2(149), 김대영(육사#59 2(216), 문은석(육사#59 2(122), 김진환(육사#61 2(97), 홍희중(육사#61 2(145), 홍인재(육사#65 2(78), 문준호(육사#67 2(86), 정운혁(육사#78 6(65), 한덕수(학군#26 2(155), 남기웅(학군#29 2(60), 구희곤(학군#32 4(198), 송경재(학군#37 2(172), 이정환(학군#38 2(123), 정우람(학군#46 2(66), 홍현신(학군#48 2(68), 유성국(학군#54 2(23), 최재호(학사#29 2(172), 임도현(학사#54 2(151), 구주현(학사#56 2(74), 임태훈(학사#55 1(120), 성현애(학사#56 2(94), 심정현(학사#58 2(82), 박철진(간부#23 4(110), 최윤정(간사#38 2(87), 송승현(원사) 2(29), 이수진(군무원) 2(58), 이주영(군무원, 라디십교관) 100(100), 정사연(군무원) 2(69)

■ 졸업생 가족('25. 5. 1.~6. 30. 기부현황)

윤종택(38 윤호영 부) 10(480), 김중국(41 김성준 부) 20(480), 김정숙(45 배형규 모) 12(212), 조경해(45 황정태 모) 10(1,040), 백인숙(47 모) 2(83), 안순봉(51 박상응 모) 20(1,410), 김현미(52 오치원 모) 2(95), 이영미(52 황성규 모) 6(436), 임성영(52 임강민 부) 2(27), 정정화(52 조강현 모) 2(388), 박일식(53 정필승 모) 2(190), 서완수(55 서지찬 부) 4(174), 송학빈(56 송웅준 부) 2(110), 정희숙(56 배웅휘 모) 20(1,630), 조재훈(56 조성진 부) 60(1,100), 김근택(57 김광진 부) 4(118), 김순말(57 김준모 모) 2(112), 박경석(57 박찬환 부) 4(126), 오유미(57 김주현 모) 4(122), 이동희(57 박찬환 모) 6(173), 김한영(58 김범수 부) 10(205), 최결순(58 최승환 부) 2(63), 정신(59 김중현 모) 2(40), 조철만(59 조현우 부) 6(86), 임성영(60 임상민 부) 2(27), 홍혜숙(60 김성호 모) 1(28)

■ 재학생 부모('25. 5. 1.~6. 30. 기부현황)

▶ 4학년부모 김혁 347(1,001), 최영순 20(160), 최정호 2(14)
▶ 3학년부모 박순화 10(10), 박찬희 6(6), 조현 100(100)

■ 졸업생('25. 5. 1.~6. 30. 기부현황)

▶ 1기 김용하 10(305), 남훈조 10(1,604), 임관택 2(126), 최익환 2(128)
▶ 2기 김진규 4(24), 윤경혁 10(680)
▶ 3기 장영진 20(360)
▶ 9기 권영호 10(650), 김현기 3(1317), 윤지환 6(279), 이창원 10(40), 이환희 5(135), 최병학 10(1,465)
▶ 13기 문성복 20(700)
▶ 14기 김길영 2(144), 김중환 2(102), 안호 20(2,468), 이순진 10(1,080), 이용진 10(600)
▶ 15기 김성연 2(572)
▶ 16기 이영호 2(169), 이종우 2(206), 황병태 4(365)
▶ 17기 남응우 4(28), 조남인 4(111)
▶ 18기 구연덕 2(176), 금용백 6(708), 노희태 3(285), 이기환 2(71), 진기상 4(1,168)
▶ 19기 김익수 4(277), 이종형 6(392), 이창호 6(711), 홍성식 2(241), 황영태 6(248)
▶ 20기 박권순 4(240), 박동순 2(157)
▶ 21기 신철수 4(1,358), 이정문 4(302)
▶ 22기 이진성 4(305), 정경호 2(91), 조태환 4(229), 천병규 4(540), 홍성덕 10(301)
▶ 23기 김태일 2(278), 김혁 347(1,001), 신영찬 2(117), 오승욱 2(354), 이윤재 100(501), 정철재 4(273), 최승환 2(53), 허강수 4(371)
▶ 24기 곽종만 4(144), 권오봉 2(280), 김도협 2(278), 김성래 4(124), 모경원 2(273), 박제철 2(116), 박찬웅 2(77), 방성대 106(377), 이문희 2(138), 정정현 2(237), 홍성희 4(136)
▶ 25기 김달호 2(15), 문봉성 4(277), 장무수 2(95), 전희준 2(351), 홍은표 2(245)
▶ 26기 고창준 2(514), 서재원 5(106), 신태영 2(139), 양성안 2(42), 유근환 1(81), 이덕우 2(173), 이완주 6(250), 이태인 4(154), 임우영 2(290)
▶ 27기 김관수 6(217), 김덕중 2(114), 김용범 4(100), 김지덕 2(68), 김호복 6(428), 나현민 4(252), 석수열 2(91), 원희은 2(360), 이희순 1(285), 정월균 2(90)
▶ 28기 권승영 1(48), 권양철 4(171), 유정일 2(81), 윤석찬 2(187)
▶ 29기 김강식 2(291), 김태영 2(120), 박성훈 20(253), 박태웅 2(178), 이상일 2(234), 정해균 2(20), 최인섭 2(158), 현대식 2(196), 황재식 2(28)
▶ 30기 김광석 4(94), 김동혁 10(180), 김홍빈 4(65), 남진오 2(101), 홍성범 2(83), 함민호 2(146)
▶ 31기 권동호 4(130), 김민식 4(182), 김영태 2(227), 김희엽 2(272), 엄항수 2(182), 이재춘 2(256), 이훈복 2(94)
▶ 32기 권관덕 4(406), 김희용 2(159), 사인우 2(181), 송진수 10(150), 정영규 4(41), 주정용 2(29)
▶ 33기 33인회 1,800(권오진, 김동기, 김대일, 김문상, 김우원, 김중국,

김중현, 김진도, 김충민, 김현규, 노일, 노정호, 노희수, 문대민, 박경호, 박성경, 박주하, 변대섭, 송찬수, 안성찬, 염은성, 오정훈, 오희곤, 이봉준, 이상민, 이상호, 이정표, 조성호, 조용화, 지용재, 천강민, 홍규환, 홍창수, 권해욱 4(116), 고은중 2(8), 권오진 5(769), 김성근 4(236), 김현규 59(539), 남석진 2(183), 안경일 2(280), 안성찬 2(57), 안준영 6(257), 이정표 6(1246), 정용호 2(24), 조용화 56(117), 조재봉 2(156), 홍종원 2(73)
▶ 34기 김민오 4(76), 김운성 2(91), 김홍식 6(573), 류영택 4(145), 이무이 2(450), 임창훈 2(126), 정웅민 2(280), 정창근 2(152), 정춘황 2(102), 조수창 2(227), 홍영기 2(71)
▶ 35기 김경철 2(55), 김수열 2(115), 박병준 6(446), 박상천 2(74), 박시근 2(226), 송명성 4(152), 유희승 4(46), 이문희 2(195), 이용우 4(24), 은병현 4(56), 임창규 2(153), 장준삼 2(190), 전성광 2(84), 정병삼 2(197), 정영석 6(185), 정호준 4(186), 하중수 2(71), 한중훈 10(468), 황재혁 5(36)
▶ 36기 김도희 4(146), 김동혁 2(135), 김명규 1(71), 김현 2(174), 박광석 2(24), 박정훈 2(17), 양현승 1(259), 이광희 2(196), 이현중 4(42), 임중수 2(116), 장세호 2(247), 정우철 2(182), 조동권 2(263), 진연수 2(207), 홍석조 2(75)
▶ 37기 김양훈 6(375), 김창기 4(239), 김홍년 2(278), 노진철 2(192), 문장권 2(66), 송석복 4(243), 송용섭 4(377), 엄태환 4(41), 안민환 2(62), 옥원호 2(178), 이관모 2(184), 이원형 4(367), 임원철 2(199), 정우진 2(116), 정태욱 4(206), 함성규 2(149), 강민 2(57), 김대현 2(60), 남상훈 3(33), 모을하 2(277), 문정민 2(162), 서성걸 2(119), 이경식 2(223), 임승현 1(50), 위재익 4(165), 정한욱 2(254), 함기훈 2(130)
▶ 39기 권웅 2(102), 김의진 2(171), 김민경 2(129), 김지훈 4(177), 박철균 2(165), 송창현 4(203), 심용은 2(134), 이대화 1(255), 이용렬 2(153), 장동준 2(139), 정대겸 2(72), 최현철 2(318)
▶ 40기 구자윤 4(262), 김백린 6(280), 김영우 6(382), 김우형 4(98),

김종욱 2(85), 김형수 2(221), 박상규 2(98), 박진하 2(137), 송석준 2(182), 유형선 2(128), 이호연 10(918), 이훈석 2(104), 조현 10(311), 주영우 2(53), 하성남 5(86)
▶ 41기 권영철 2(111), 김석진 10(463), 박한지 2(230), 방현욱 2(121), 임성은 4(209), 전종상 10(427), 정기채 2(230), 최민규 4(201), 홍학현 6(118)
▶ 42기 강구한 2(62), 강재석 2(149), 강정희 2(198), 공광석 2(104), 김동우 2(172), 김동진 2(141), 김용민 2(108), 박용준 6(166), 박효찬 2(198), 손병현 2(216), 안정환 4(74), 윤광일 2(54), 윤희철 2(192), 이성호 2(73), 이승은 1(197), 이용학 2(201), 이호선 4(88), 정만기 2(191)
▶ 43기 김민수 2(70), 김민중 2(282), 노창래 1(88), 박희영 2(105), 배동직 2(251), 백두산 4(326), 엄태섭 2(90), 윤재필 2(6), 이남익 2(109), 이도훈 2(173), 이용희 4(313), 이호선 2(128), 최진호 2(161), 허광석 2(137)
▶ 44기 김대은 2(149), 김승돈 4(86), 권용혁 4(120), 서동준 2(184), 엄태천 2(137), 오승우 6(172), 이민재 2(176), 이영민 2(185), 이희성 4(227), 최재균 2(116)
▶ 45기 권기호 2(179), 김동호 2(187), 김성수 4(197), 박영일 2(182), 박지훈 2(130), 신유철 2(172), 이인권 2(127), 이진희 4(218), 정재현 2(183), 정진우 2(184), 채희용 2(162), 최영우 2(5), 최충수 2(185)
▶ 46기 강승우 4(346), 강준구 2(24), 권지민 2(58), 김대영 2(85), 김명철 2(171), 김정렬 2(171), 김정호 2(288), 김정훈 4(53), 김진용 2(205), 박수만 2(77), 백인정 2(171), 송원상 4(290), 오기리 2(169), 이상운 2(171), 이신화 6(465), 이수원 2(174), 이진철 2(161), 정종택 6(515), 조광원 2(109), 조수빈 2(133), 차승우 2(133), 표상열 2(171), 한영인 2(171), 홍한표 2(162)
▶ 47기~60기 기부현황은 www.kaayf.or.kr 또는 "충성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25년 전반기 정기이사회 개최

2025년 6월 16일 이창호 재단이사장등 임원진은 정기이사회를 위해 학교를 방문하였다. 학교장(박성훈 소장)은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재단 이사장을 반갑게 맞으며 그동안 학교 핵심사업 소개와 특히 학교발전기금으로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였다. 이어서 정기이사회에서는 타사관학교 발전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학교장의 상임이사 제 도입 토의와 교내 당면직 감사(현 감찰실장)를 연속성 향상을 위해 중령급 이상 교수, 선임직 선발제에 대한 정관계 정을 의결하였다. 또 오랜 기간 학교 및 재단발전에 헌신해온 신철수(3사 21기)이사, 김기영 이사(47.49기 부친)가 명예롭게 퇴임하고 제37대 학교장 방성대(24기)장군과 이재길(32기,엘티씨엔엠 대표)가 신임이사로 취임하였다. 또 교외 감사에 최우원 법무사(36기, 가을 법무사무소 대표)와 교내감사에 구희곤 대령(3사교수학군#32)을 각각 선임하였다. 재단이사회는 전 학교장과 3사교수, 공익법인 및 공공단체 임원경력의 32기 이사, 36기 감사등의 취임을 통해 법무세무행정분야의 전문성 확보와 학교 실무진과의 이해와 소통의 폭을 넓히는데 초점을 맞춘 정관계정과 임원변경을 추진하여 학교발전 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근접한 지원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모았다.



5월의 교정에 퍼진 진정한 후배사랑의 향기

2025년 5월의 충성대 교정은 졸업생들의 임관기념행사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5월 9일은 50기가 임관10주년을, 5월 16일은 49기가 작년 학교공사로 못했던 임관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교와 후배생도들을 향해 모여 들었다. 2년간 생활했던 곳인지 몰라볼 정도로 변모한 모교의 발전된 모습을 확인하고 이곳에서 더 큰 꿈을 향해 기립 바라는 마음으로 학교발전기금 1천만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특히 33기들이 모교발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지는 취지로 결성한 1차 33인 일행이 5월 16일 방문, 학교발전기금 1,800만원을 쾌척하며 모두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였다. 이러한 졸업생들의 자발적이고 진심어린 사랑의 실천이 많아질 때 명문사관학교로 향하는 육군3사관학교의 도약은 더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발전 기금
참여 안내

입금계좌 육군3사관학교 발전기금(예금주)

• 농협 : 766-01-003094 • 국민은행 : 620-01-0861-994
• 우체국 : 900969-01-003463 • 대구은행 : 049-05-005898-6

※ 기부자 정보수정 희망시에는 재단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054) 330-3180, 3182





* 현역병 및 복사관
가산점 부여

* 복무기간 고려
지원 연령 상한

* 생도 과정 2년간 전역 국비 지원
매월 품위유지비 지급

* 졸업 시 병역 + 취업 + 학위 동시 해결

육군3사관학교!

당신의 도전을

무한한 가성으로 바꾸는 이름

원서접수: 매년 4월 ~ 5월

문의: (054) 330-3434

카카오톡 채널 : 육군3사관학교 입학안내